

1. 말씀

- 1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 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2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 3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던진 모욕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 4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희망을 갖도록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 6 여러분이 한마음과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듯이 맞아들이십시오.
- 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보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며
- 9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 10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 11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송하라."
- 12 또 이사야도 "이새의 후손이 나타나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13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이 제시하는 두 가지 원칙은 무엇인가요?(1-2절)

→ _____

- 5절에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 _____

- 나의 말과 행동은 덕을 세우고 있나요? 최근에 나의 언행으로 누군가를 세운 적이 있다면? 반대로 무너뜨린 적은?

→ _____

- 4절에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희망을 갖도록 교훈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내가 위로와 희망을 얻은 경험이 있나요? 요즘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요?

→ _____

- 5절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라고 소개합니다. 누군가와 하나 되기 어려웠던 상황은 언제였나요?

→ _____

-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듯이 맞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에 있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내 주변에서 내가 더 따듯이 맞아들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_____

- '12절은 예수 안에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요?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희망을 걸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 기대고 있나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 최근에 나와 다른 배경, 스타일,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나요? 내가 더 따듯이 맞아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5:1-13(서로 용납하는 성도)

사람들의 모임에는 어디에나 다양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임이 잘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보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 모임을 이끄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기에, 지도자의 덕목을 따져보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덕스러운 이가 지도자일 경우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가 생길 것이고, 따라서 덕스러운 이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좋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이느냐에 따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대로, 율법적 조항을 따질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온당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덕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세워지는 것이기에 근본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덕을 이루어가는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하려는 사랑의 정신을 훈련 받는 기회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6. 기도